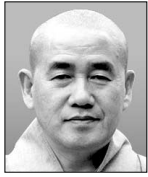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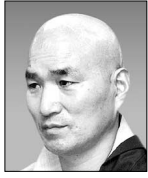
일주문



아도 스님 다례제
구미 도리사 주지 법등 스님은 10월 1일 아도 스님 다례제 및 '법음의 종' 타종식, 아도 스님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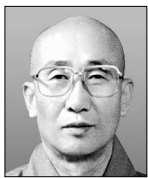
봉은사 회주 추대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은 9월 23일 열린 중앙승가대 운영위 회의에서 서울 봉은사 회주로 추대됐다. 추대식은 10월 5일 봉은사에서 열린다.



보살계 수계법회
김천 직지사 주지 성응 스님은 10월 13일 오전 10시 만덕전 금강계단에서 직지사 회주 녹원 스님 등을 계사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영산재 및 예수재 봉행
대구 대성사 주지 정산 스님은 10월 9-11일 3일동안 무형문화재 50호 영산대제 및 예수재를 봉행한다.(053)624-0542



대교종 총부교구 신도교육
대교종 총부교구 총무원장 월담 스님은 10월 22-23일 대교총림 순천 선암사에서 정기 신도교육을 실시한다.(043)265-7100



봉정암 성지순례
서울 대성사 주지 법안 스님은 10월 1일 서초경찰서 불자회원 40여명과 함께 삼보사찰 순례길을 떠나 설악산 봉정암을 참배했다.



경북불교대학 입학식
대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장 돈관 스님은 9월 25일 설립전에서 18기 200여 명 주·야간 대학생 입학식을 거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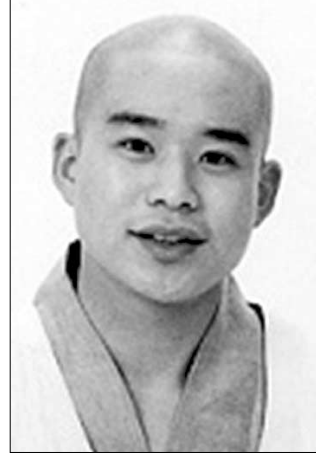
동화사서 동양화 전시회
대구 동화사 전 총무국장 재운 스님은 9월 28일-10월 8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동양화 작품 64점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해인사 강원의 추억을 그렸어요”

‘아름다운 기억’ 주제 전시회 여는 원성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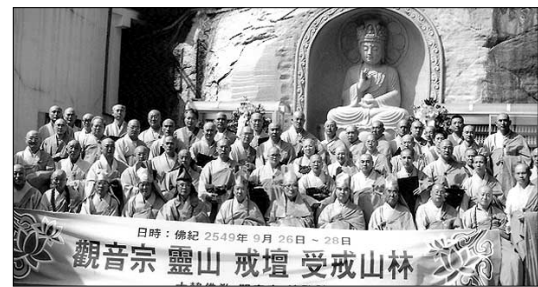
영국에서 유학중인 동승의 화가 원성 스님(사진)이 9월 26일 잠시 귀국했다. 시드니 난티엔뮤지엄(10월9일-12월31일)과 멜버른 포광위엔갤러리(내년 1월6일-3월31일)에서 ‘아름다운 기억들(Beautiful Memories)’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 홍보차였다. 스님은 이번 두 전시회에서 동자승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런던에서 화인 아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학중에는 주로 해외 전시에 치중할 예정이고 국내에서는 6년 뒤에나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원성 스님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2년전쯤 일이다. 당시 동자승 그림과 시를 함께 엮은 <풍경> 책 출간과 모 인터넷회사의 텔레비전 CF 출연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며 유명세까지 치르고 있었다. 하지만 스님은 ‘수행자의 길은 이게 아닌데’

하며 2003년 출연히 영국으로 미술공부를 위해 결망을 지고 떠났다. 이후 잠깐씩 한국에 다녀간 적은 있지만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에서 제일 그리웠던 것이 바로 절의 대중생활이었어요. 특히 해인사 강원에서 200여 명 스님과 함께 생활했던 아름다운 기억들은 잊을 수가 없더군요. 그 그리움의 감정을 이번 작품들 속에 담아냈습니다.” 스님은 지금 영국에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수묵 담채 기법에서 벗어나 유화종으로 동자승을 표현하고자 변신중이다. 대대적인 화풍의 변신 유희 기간을 스님은 유학이 끝나는 6년 뒤로 잡고 있다. 또 내년에는 <꽃비>라는 제목의 동화책도 출간할 예정이다. “2년 전 수경 스님과 함께 서울 역에서 조계사까지 삼보일배(三步



一拜)를 했어요. 그때 머리에 흙을 묻혀본 적이 한번도 없었어요. 전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바닥이었죠. 그때 환경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에다 어린이들에게 환경문제를 일깨워 줄 수 있는 동화책을 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원성 스님은 “당분간은 해외 전시와 공부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호주 전시회 준비를 위해 9월 28일 출국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태허 스님 탄신 101주년기념 수계법회



관음종(총무원장 흥파)은 9월 28일 서울 묘각사에서 개산조 태허 스님 탄신 101주년 기념 영산계단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했다. 또한 관음종은 9월 26-28일 묘각사에서 연수교육과 승과고시를 실시했다. 52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50명이 비구·비구니·사미·사미니로 새롭게 탄생했다.

민추본, 대북지원 물품 상차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는 9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할 3억 500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 600여 상자 상차식을 진행했다. 지원물품은 전국 90여개 사찰에서 보내온 비누, 치약, 컵, 의류 등으로 10월 초순경 조분런까지 보내진다.

광주 서부경찰서 불교회 수계식



광주 서부경찰서 불교회(회장 김장배)는 9월 24일 광주 향림사(조실 원운)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서부서 불교회원 20여 명은 조계종 대종사 원운 스님(대종사 조실을 계사로 재가 오계를 받았다. 수계식에 이어 서부서 불교회는 향림사에서 보육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금일봉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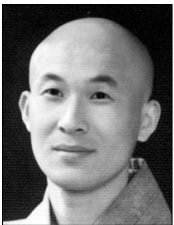
광주 원각사 동구청에 성금 전달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는)는 9월 20일 동구청을 방문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주지 도제 스님은 유태명 동구청장실에서 성금을 전달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세탈라”고 당부했다. 이번 성금은 9월 3일 원각사 선우회가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개최해 마련했다.

지거 스님 서울시노숙인시설협 회장에

9월 22일 명동 가톨릭회관 3층에서 열린 서울시노숙인시설협의회(이하 서울노숙인시설협) 창립총회에서 2년 임기의 초대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된 지거 스님(사진). 불교계 노숙자 시설인 서울 ‘보현의 집’을 이끌어온 스님은 노숙자 인권 보호에 앞장 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80여 개 노숙단체가 소속된 서울노숙인시설협회장으로 활동할 지거 스님은 “이번 기회에 불교복지 위상을 한층 높여야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노숙자들에게는 시설 프로그램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더 필요합니다.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김강진 기자



일경 스님 환경운동가·인권상 수상

일경 스님(서울 삼광사 주지·사진)이 9월 24일 국화환경노동위원회가 수여하는 환경운동가상과 국민연대 산하 삼청교육진흥국위원회에서 표창하는 인권상을 동시에 받았다. 스님이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3년여 전. 국민연대 불교분과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스님은 서울본부의 삼청교육진흥국명진국위원회를 통해 사건의 어두운 일면에 관심을 갖게 됐다. 작년 11월에는 억울하게 죽은 원혼을 달래는 노제를 올렸다. 또 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수차례의 장외 집회를 가졌고 국회의원 방문단을 구성해 요구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조직 정비해 활동 폭 넓힐터”

연합포교사단장 차은산 포교사

신인 연합포교사단장 차은산(51·사진) 포교사는 10월 8일 김제 금산사에서 진행될 취임식을 앞두고 연합포교사단의 ‘힘’이 되기를 자처하고 나섰다. 불교 포교에 전적으로 투신한 것이 3년여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차은산단장. 그러나 불교 포교에 대한 열정과 지난해 동산불교대 회장직을 수행하



면서 보여준 사업 능력 등을 다른 연합포교사들로부터 인정받았기에 선임 단장이 될 수 있었다. 우선 전국 15개의 불교대학이 함께하고 있는 연합포교사단의 연

대관계 구축과 연합포교사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차 단장의 가장 큰 고민이다. 그래서 차 단장은 “연합포교사들의 포교 활동을 독려하고 조직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현재 11개로 나뉘어져 있는 분과를 6개 분과로 개편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모든 연합포교사들이 저를 도와주실 것이라 믿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젊고 역량 있는 연합포교사의 활동을 기대해주시요.”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여래종 총무원장 법우 스님 입적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월봉당 법우 스님이 9월 27일 저녁 평택 용호사에서 입적했다. 영결식은 10월 1일 용호사에서 봉행됐고, 다비식은 여래종 총본산인 육천 대약사에서 거행했다. 법우 스님은 1965년 인왕 스님을 은계사로 출가, 평택 용호사를 창건하고 대승 불교여래종 총무원장을 4대째 역임했다.(031)691-6272 김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대원불교대 추계체육대회



대원불교대학(학장 허경규)은 9월 25일 김천 봉계초등학교에서 추계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허경규 학장을 비롯한 불교대학과 대학원생 200여 명은 피구, 족구, 2인3각, 줄다리기, 장기자랑 등의 실력을 겨뤘다. 부산대원 불교학원이 우승하여 트로피와 상금을 가져갔다.

「대한 불교 조계종」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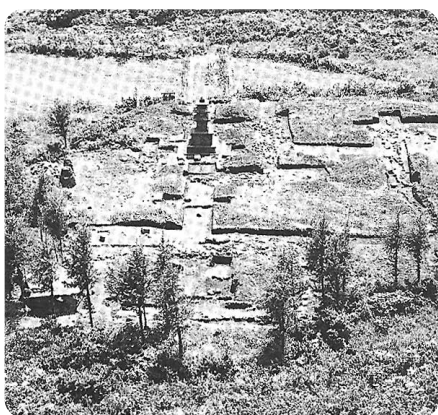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헌에, “본종은 신라 현덕왕 5년에 조계혜능 대사의 증법손 서당 지장 선사에게서 심인을 받은 도의 국사를 종조로 하고, 고려의 태고보우 국사를 종흥조로 하여 이하 청허와 부휴 양법맥을 계승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계종 道의국사 님께 참배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설악산 진전사

초조 달마에서
도의국사까지

조계종
신비의

설악산
“진전사”에서 만나보세요



하서지(下寺地)발굴구역 전경



진전사지 출토 청동여래입상



진전사3층석탑(국보122호)



유리머리 최초의 선조부도



500여년만에 복원된 조계종 총조 도의국사가 주석했던 진전사

조계종「도의국사」의 천년 숨결이 있는 「조계종찰」 진전사가 500년만에 발굴 복원되었습니다

찾아오시는길
영동고속도로-강릉-양양방면-양양장산리-석교리-둔전리
중부고속도로-홍천IC-인제-속초-양양물치-장산리-석교리-둔전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산 37
011-545-2375, 016-358-8084